AI PESONAL FINANCIAL ROBOADVISOR

| 한국주식 | 투자전략 보고서 | 발간일자 2026년 3월 23일 |
|---|---|---|

# 주간투자전략 (3/23~3/27)

## "3 고(高) 시대 생존 법칙! 공포에 지지 말고 '자원과 안보' 쥔 종목으로 포트 재편하라"

- 공포의 정점과 반격의 실마리: 지정학적 변동성을 이기는 펀더멘털
- '극심한 매크로 노이즈'와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정면 충돌하는 주간
- 보수적 관망 속 분할 매수(Wait & Buy): 반도체(HBM/공급망), 방산(천궁-II 수혜), 원전/SMR(에너지 안보), 조선 등

극심한 매크로 노이즈'와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정면 충돌하는 주간이 될 전망

### 공포의 정점에서 반격의 실마리 ... 지정학적 변동성을 이기는 펀더멘털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지정학 리스크에 흔들리되, 실적과 정책이 받쳐주는 변동성 장세"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유가, 달러, 금리가 동시에 임계치에 근접했고, 미국 증시는 200 일선 이탈 부담이 커졌지만, 한국 증시는 반도체 실적 기대와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정책, 선행 EPS 상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다.

첫 시작부터 야간 선물의 하락 분(-4.35%)을 반영하며 고통스러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전쟁 사례에서 증시의 하락은 '개입 직전'이 공포의 정점이었으며, 이후 실적 장세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 현금 확보보다 종목 교체

현금을 들고 관망하기보다, 매크로 불안에 취약한 내수/소비주를 매도하고 유가 상승과 전쟁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자원 및 안보(원전, 방산, 반도체)'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십시오.

### 환율 1,500 원대를 즐겨라

외국인 이탈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이 환율에서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일 환차익과 가격 경쟁력은 2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확고한 담보가 됩니다.

### W 자형 리테스트의 활용

지수가 주 초반 급락 후 반등, 재차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LIG 넥스원이나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국가 전략 자산'화 된 종목들은 지수보다 먼저 신고가를 경신할 것입니다.

보수적 관망 속 분할 매수 전략

### 결론적으로,

금주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실적'이라는 본질을 찾아내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월요일 아침을 견뎌내고, 에너지 주권과 AI 주도권을 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서바이벌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방산, 원전 조선업종에 관심

###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

- 반도체 / IT 하드웨어: 삼성전자, 대덕전자, 주성엔지니어링 등
- 에너지 / 방산 / 원전: LIG 넥스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등
- 조선 / 증권 / 바이오, 제약: 티엠씨, KB 금융

## [주간 5 대 핵심 관전 포인트]

| | |
|---|---|
| **미 지상군 파병 및 트럼프의 행보** | 주말 사이 제기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유가를 120 달러 선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핵심 뇌관입니다. |
| **달러-원 환율 1,500 원 시대 생존** | 7 년 만의 고환율은 수급상 외국인 이탈을 자극할 수 있으나, 반대로 수출 대형주(반도체,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
| **HBM4 공급 주도권 재확인** | AMD 가 삼성전자의 HBM4 를 확보하고 파운드리 딜까지 연계했다는 소식은 반도체 섹터의 이익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상향 시키는 촉매제입니다. |
| **'천궁-II' 요격률 96%의 나비효과** | 중동 전역에서 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긴급 수혈'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수출을 넘어 '에너지 우선 공급권' 확보 등 국가 전략적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
| **에너지 주권과 원전 르네상스** | 중동 가스 공급 중단 우려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원전 수명 연장 및 SMR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

##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

| | |
|---|---|
| **상승 요인** | **1) 반도체 ASP(평균판매단가) 급등:** 공급 부족 장기화로 2Q26 가격 상승폭이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br>**2) 거버넌스 개선 정책 모멘텀:** 코스닥 1, 2 부 분리 등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가 주총 시즌과 맞물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줍니다.<br>**3) K-방산의 전략 자산화:** UAE 의 원유 우선 공급 약속처럼 방산 수출이 국가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는 실질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
| **하락 요인** | **1) '3 高' 현상의 임계점 돌파:** 고유가·고환율·고금리가 기업의 금융 비용을 가중시키고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합니다.<br>**2) 글로벌 유동성 위축 시그널:** 금(Gold) 가격의 주간 11% 급락은 자산 시장 전반의 레버리지 축소(De-leveraging)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br>**3) 야간 선물 발 수급 쇼크:** 월요일 개장 시 기관 및 외국인의 기계적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심리적 지지선을 일시 이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
| **변수 요인** | **1) 이란의 보복 방식(비대칭 전술):**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 여부가 국제 물류 및 에너지 가격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br>**2) 미국 3 월 소비자심리지수:** 고물가 상황에서 미국 소비가 버텨주는지가 글로벌 경기의 침체 여부를 가를 잣대가 될 것입니다.<br>**3)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시장은 이미 인하 시점을 2027 년으로 늦춰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높이 조정'이 증시에 완전히 반영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 [금주 투자 유망 섹터]

**반도체 / IT 하드웨어:** 실적 상향, AI 수요, 메모리 가격 상승, 하드웨어 이익 증가 기대가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에너지 / 방산 / 지주 / 은행:** 유가 상승-달러 강세 국면의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 / 증권 / 제약·바이오:** 향후 전쟁 완화와 달러 약세 전환 시 상대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업종 등입니다.

## [주요 관심 종목 및 포인트]

| 코드 | 종목명 | 업종 | 시총 (십억원) | 주가(원) | 주간상승률 |
|---|---|---|---|---|---|
| 005930 | 삼성전자 | 반도체 | 1,180,375.8 | 199,400 | +8.66 |
| 079550 | LIG넥스원 | 상사,자본재 | 14,542.0 | 661,000 | -8.58 |
| 034020 | 두산에너빌리티 | 기계 | 70,205.5 | 109,600 | +2.91 |
| 217590 | 티엠씨 | 조선 | 568.6 | 23,600 | +53.15 |
| 042660 | 한화오션 | 조선 | 39,558.0 | 129,100 | -5.70 |
| 105560 | KB금융 | 은행 | 57,866.4 | 155,200 | +4.23 |
| 353200 | 대덕전자 | IT하드웨어 | 4,091.7 | 82,800 | +30.81 |
| 005490 | POSCO홀딩스 | 철강 | 27,800.5 | 343,500 | +1.93 |
| 010950 | S-Oil | 에너지 | 12,586.8 | 111,800 | +3.52 |
| 034230 | 파라다이스 | 호텔,레저서비스 | 1,684.9 | 18,190 | +8.60 |

자료: 독립리서치 핀릿

**관심 종목**

**1) 삼성전자(005930):** DRAM/NAND 동반 가격 상승 수혜. AMD 향 HBM4 공급 및 파운드리 연계 딜로 2026 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 경신 전망

**2) LIG 넥스원 (079550):** 천궁-II 실전 요격률 96% 입증. 미 패트리어트 대비 압도적 가성비로 중동 각국의 긴급 수주 쇄도 및 에너지 안보 직결 종목

**3)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에너지 주권의 핵심. 체코·미국 프로젝트 수주 임박 및 중동 가스 공백을 메울 유일한 대안으로 SMR 투자 확대 수혜

**4) 티엠씨(217590):** 조선 산업 성장세 진입. 안정적 수주잔고와 원자력 산업 진출 본격화, 미국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리레이팅 국면

**5) 한화오션 (042660):**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른 LNG 선 수요 증가 및 해상 물류 병목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

**6) KB 금융(105560):** 변동성 장세의 방어막. NIM 상승과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주총 시즌 배당 확대 기조로 지수 하락 시 하방 경직성 제공

| | | |
|---|---|---|
| | | **7) 대덕전자(353200):** 비메모리·기판 수요 확대와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가 유효하며, 영업이익률 10%대 진입 후보<br><br>**8) POSCO 홀딩스(005490):** 대수리 영향 해소, 자회사 실적 개선, 중국 생산 규제 수혜 및 에너지·원자재와 연계된 소재 대형주로서 방어와 회복 논리<br><br>**9) S-Oil(010950):** 정제마진 강세, 미국 정제설비 폐쇄, OSP 안정화 가능성 및 고유가 구간의 상대 수혜주 부각<br><br>**10) 파라다이스(034230):** BTS 공연 계기 인바운드 유입, 객실 확대, 중국 Mass 방문객 성장세 및 전쟁 완화와 소비 회복 기대가 붙을 경우 레저·카지노의 탄력이 살아날 가능성 |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 영 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I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의 작성자 금융투자분석사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